



《발칸의 전설》
요르단 욥코프 지음 | 신윤곤 옮김 | 문학과지성사 | 196쪽 | 값 8,000원

불가리아 소설 《발칸의 전설》 사랑하므로 존재하라

글_이주연 기자

한 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담이나 전설에는 그 민족의 '정수(精髓)라고 할 만한 것이 깃들여 있기 마련이다. 그 땅 위의 음식을 먹고, 그 땅에 집을 짓고 사는 민중들의 삶의 원형이 깃든 이야기들은 그래서 '문자'가 없던 시대를 살아남아 '문자'로 기록될 수 있었다.

마을의 바위에 치성을 드리는, 비적떼의 두목을 사랑하는, 돈을 벌러 간 아이 아버지를 기다리는 조상들의 이야기는 문자의 옷을 입고 비로소 '문학'이 되었다. 이런 이야

기들은 '형식' 이전부터 '존재' 해왔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적으로 소중한 '문화 콘텐츠'의 보고다. 우리가 '전설'이나 '민담'이란 말에 이상하게 맘이 설레는 것은 '형식' 이전의 '이야기'에 대한 오래된 믿음 때문이다.

《발칸의 전설》에 실린 10편의 이야기는 '불가리아의 성서'로 불리는 고전이다. 불가리아가 터키의 지배를 받던 15~19세기 발칸을 배경으로 '제라브냐'라는 산촌마을의 민요, 민담, 전설 등을 수집해서 엮은 것이다. 이 책이 특별한 것은 이야기를 '수집해서 엮은' 요르단 욥코프라는 작가 때문이다.

그는 1920년대, 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고통스러운 자국민들에게 불가리아인들의 '정수'가 깃든 《발칸의 전설》을 통해 정신적 치유사 역할을 했다. 다른 작가들이 시와 산문을 통해 '현실에 대한 체념'을 노래할 때 그는 발칸 반도의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상상력을 현존하는 문학으로 복원시킨 것이다. 그가 복원한 '전설'은 불가리아인들에게는 익숙한, 그러나 일정한 시공과 동일한 문체를 갖춘 전혀 새로운 이야기였다.

책에 실린 10편의 전설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는데, 각 이야기의 시작에는 작가에게 모티브가 된 '민요'나 '연대기', '우물의 명문(銘文)' 등이 간략하게 적혀있다. 유명한 산적 두목 시빌과 마을 유지의 딸 라다의 죽음을 불사한 사랑을 그린 <시빌>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젊은 시절 비적단이었던 크라이날리야가 과거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죽은 달맞이꽃 언덕을 찾아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달맞이꽃 고원에서>로 끝난다.

조국이 병들어 신음한다고 그 땅 위의 젊은 피까지 차가워지는 것은 아니다. 사랑하고, 배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약동하는 '인간사'는 여전하다. 억압할수록 불온한 에너지는 더욱 팽창한다. 갇힌 것은 탈출하려고 하기 마련이다. 나와 타인이 연대하거나 화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 사이를 잇는 '사랑'이다. 마찬가지로 전설의 주인공들 또한 시대의 아픔을 겪는 상황에서도 '사랑' 때문에 살고, 또 그 때문에 죽고, 그리고 그 때문에 변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런 관점은 이 시기 불가리아 문학에는 전무한 것이었다. '우리'를 얘기하던 불가리아 문학에서 '나'를 처음 얘기한 것이 바로 욥코프였다. '나'를 얘기하기 위해 발칸의 전설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소재였다. 전설이란 '민족'이 공유하는 '개인의 이야기'다. 작가는 이분법적 방식으로 인물을 묘사하지 않는다. 영웅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선인이 아니고, 비적이라 할지라도 뿌리까지 악인이 아니다. 이들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사랑' 뿐이다.

인간은 사랑하므로 존재하는가. 존재하므로 사랑하는가. 《발칸의 전설》은 말한다. 삶의 원형은 '사랑'이라고. 그러니 사랑하므로 존재하라고.